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유부남만 안만나도 인생 성공?

바람 피운걸 들리고도 일년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상대 여자를 결국 만나러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선배는 지금까지 아줌마를 한번도 사랑한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려고 했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아줌마 물렸죠? 메롱. 이런 비밀이 있었던 말이에요.

한심하다 못해서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마흔되는 하늘같은 부장님은 선배라고 부르면서 그 선배의 아내를 꼬박꼬박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신입 여직원, 제 친구의 반응에 당황했나봅니다.

그 선배가 했던 수많은 말들, 약속들을 다 얘기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동정심으로 결혼했고, 평생 사랑한다는 말해본적 없고, 남편처럼 살고 있고, 결혼해서 10년도 못났는데 로또 당첨된 것처럼 애들이 돌아나 생겼답니다. 80%는 거짓말이고 20%는 거짓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내용들이었지요. 달콤한 꿀단지인줄 알았던 것들이, 뚜껑열어보니 구더기 끓는 바구니인 격이지요. 외도가 원래 까발려지고 나면 구질구질

하고 참혹하기 이데 없는 일이지요. 유치함의 신기원을 여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가씨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관심한 이야기군요. 아가씨의 그 선배가 대학 때



우리 연애하던 이야기는 안해줬나보지요? 내가 헤어지려고 할때마다 약 먹었다고 협박한 얘기도 안해줬군요. 이혼해줄테니 아가씨에게 가라고 했더니 사랑한다고 응서해달라더군요. 아가씨랑 절대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식사 몇 번 같이 했다고 울면서 빌려주세요. 헤어지고 싶은데 아가씨가 헤어져주지 않는다면요. 아가씨의 그

선배처럼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 아가씨,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요? 진짜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진심으로, 몇 번이나, 울듯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그 아가씨를 보며 정말 달리 할말이 없더라고요. “아가씨가 이라고 다니는거 부모님은 알아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나 상처받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아가씨를 보곤 전투의욕 상실해서 돌아왔습니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고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 남편이나 그 말을 믿는 그 아가씨나, 어쩌나 우울하고 칙칙하게 잘 어울려지지, 진심으로 돌이켜 결혼시켜주고 싶었답니다. 그날 밤 제 친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도대체 그 어린애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거니. 네 딸보다 겨우 10살 많은 애 데리고 그애 할짓이니? 그애가 진짜 네 사랑이면 사랑만 해라. 사기는 왜 치니? 그애 앞에서 내가 내 남편이라는게 진심으로 칭찬하더라. 그애가 나중에 세상물정 알게되면 너를 필로 기억할까? 그런 생각은 안해봤니? 그애 보면서 딸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들더라. 우리 딸이 나중에 꼭 너같은 유부남 만나서 그런 물정 모르는 소리 나발 대고 있을까봐 정말 걱정된다.”

그 아가씨가 제 친구에게 준 교훈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사랑 듬뿍 줘서 키우고 그렇게 물정 모르게 살지 않도록 세상을 가르쳐주세요. 애가 자라서 유부남만 안만나도 인생 성공한거라고 생각하십니니다.

“지금까지 아줌마를 사랑한적이 없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아줌마 몰랐죠?”

검색절정 키워드

영화배우 권상우(29)씨가 조폭 두목 출신의 김태준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방과 두목 출신인 김태준(57)씨가 일본 야쿠자 중간보스 출신으로 연예사업을 하는 N씨의 부탁을 받고 권씨에게 일본에서의 공연을 강요한 혐의가 기소됐다.

권상우 협박사건 인터넷 시끌

이거지"라며 이틀에 걸쳐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권상우, 김태준, 서방파를 비롯해 '조양문' 등이 한때 인기 검색어에 포함되기도 했고 조폭들에 대한 비난글과 권씨를 격려하는 댓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최근 출시된 마이크로 소프트의 새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도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특히 윈도 비스타의 국내 단종 가격이 미국 현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 네티즌들은 '윈도 비싸'라는 패러디 광고를 제작해 퍼 나르기도 했다.

설경구·김남주 주연의 영화 '그놈 목소리'(감독 박진표)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화는 지난 1991년 실제로 일어났던,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을 다룬 것으로,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과 더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3대 미해결 사건으로 꼽힌다.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현역 병 복무기간을 2014년(임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한다는 정부 발표 뒤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이미 입대만 경우에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바둑 기사: 정석의 중요성 2보(11~27). 백 윤용희 (비야중 1), 흑 권재구 (문성중 1). 백 14까지가 어 린이 최강부 결승전과 똑같은 진행으로 일명 '조훈현 정석'이다. 그때는 15로 '가'에 두었었는데 권재구군은 우하귀 소목과 의 조화를 고려해 15로 높게 둔 것으로 보인다. 정석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석이란 당대 최고수들의 고심의 결정체다.

바둑 소식: 이창호 - 구리 농심배 최종 격돌. 이창호 9단이 8일 중국 상하이 화팅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 제13국에서 중국의 2장 공지가 7단을 134수 만에 백 불계로 꺾었다. 한국의 마지막 카드인 이창호는 지난해 요다 9단에 패해 농심배 14연승행진에 제동이 걸린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중국 랭킹 2위인 공지가 7단을 쓰러뜨린 이 9단은 9일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과 대회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는 한·중·일 국가대표 5명이 출전, 연승전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준승기전이다.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다.

주안 금상성 검색어 (네트닷컴 제공). 1위 정일우, 2위 윈도비스타, 3위 정몽구, 4위 노예 매리, 5위 스펀영림 김하나, 6위 하안거림, 7위 부흥산대학, 8위 권상우 협박, 9위 그놈 목소리, 10위 군복무 단축.

뉴스퀴즈

50. 40억 아시아인들의 겨울철 스포츠 축제인 제6회 창춘 동계아시아게임이 4일 끝났습니다. 26개국 1천100여 선수·임원이 참가해 얼음판과 눈밭에서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9개·은 13개·동메달 11개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대회 막판 일본에 추월당하며 지난 1999년 강원도 용평 대회 이후 3회 연속 2위 달성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몇 위일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로힐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9일(음 12월 22일 甲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38> Life is full of surprises. 그릴 수도 있나 보군요. A: Do you know Mr. Kim? B: You mean that old guy in his forties? A: Well, he's getting married finally. B: Married? Life is full of surprises.

오하오우 니혼고 <838> 正月(しょうがつ)休みはどうするんだい? 설 휴가는 어떻게 할거야? A: 正月(しょうがつ)休みはどうするんだい? B: そうだな. 今年は北海道にスキに行こうと思ってるんだい.

니하오 쑹구위 <29> 今天天气真不错. 오늘 날씨 정말 좋다. A: 天气真不错. B: 是啊, 天气真好. A: 是啊, 天气真好. B: 是啊, 天气真好.

한자 이야기 <456> 舉案齊眉 (거안제미). 들 거, 밥상 안, 가리리할 제, 눈썹 미. 거안제미(舉案齊眉)는 밥상을 눈썹과 가지리하도록 들어올려 바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편의 인품을 존경하며, 그의 지를 따라 극진한 내조로 집안을 화목하게 꾸리는 아내의 미덕을 기리는 말로 사용한다.